"다시 호남의 중심으로"

나주시, 선도프로젝트 본격화

오늘 민관공동위원회 공식 출범

5대 정책분야 15개 선도과제 발굴

나주시가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발굴한 선도정책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나주시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선도정책과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방적 정책 협치 구조의 '민관공동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민선 7기 시정 비전으로 선포한 선도정책과제는 나주시가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을 정책과제로 발굴한 초대형 정책프로젝트다.

이 정책프로젝트는 △영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슬로시티 인증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및 군부대 이전 및 산포 비상활주로 지정 해지 △광주~나주(목포) 간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마한사 복원 및 역사문화도시 지정 등 중·장기 시책 사업으로 5대 정책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나주의 역사·문화, 자연과 생태, 산업·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방치하고 묵과해왔던 근본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창출한다는 포부다.

이날 출범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는 선도정책과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각 과제별 학계 전문가, 연구원, 대학 전)총장 및 교수,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한 저명인사 51명으로 구성됐다.

세부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를 주축으로 정책고문단, 분과위원회, 정책추진단으로 각각 나뉘어 성공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개방적 정책 협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영산강 생태종합계획,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구축, 마한사 복원 등은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민관공동위원회 사전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에 강인규 나주시장과 장희천 광주대학교 명예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은 총 10인으로 △전승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 △서왕진 (재)서울연구원장 △양복완 전남대학교 초빙교수 △정재수 전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임영진 마한연구원장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이 맡는다.

선도정책 추진 정책 자문과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고문단은 공동위원장 10인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32인(붙임 표)을 위촉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선도정책과제는 개방과 통합, 도약과 행복의 나주시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민관공동위원회 출범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과제들이 하나하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30년새 반토막' 담양, 인구늘리기 릴레이 협약

1980년 9만1174명에서 지난해 4만7526명으로 입주 기업들과 잇단 협약

담양군이 저출산과 역외 유출에 따른 인구 절벽에 맞서 지역 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직원 주소지 이전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과 청년정책협의체는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중인 '담양애(愛) 주소갖기 운동' 중 하나인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 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군과 협의체는 지난 7일 4개 기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에코농공단지 입주기업체 4곳과 추가로 협약을 맺어 인구늘리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향셀, ㈜산들촌, ㈜세기중공업, 네이처퓨어코리아가 참여했으며, 군은 정주여건 개발 현황을 홍보하고 기업체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군과 협의체가 인구늘리기에 발벗고 나선 것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구감소세가 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담양인구는 1965년 12만9508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1980년 9만1174명, 1990년 7만3842명, 2000년 5만5459명, 2010년 4만8448명, 2015년 4만8024명, 지난해 4만7526명으로 30년새 반토막으로 줄었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기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향후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양에 연고를 둔 기업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협의체 관계자도 "인구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저출산 기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 벼 매입 시작

오는 29일까지 추진

화순군이 지난 16일부터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 벼 매입을 시작했다. 산물 벼 정부 매입은 오는 29일까지 추진한다.

산물 벼 매입 규모는 1900t으로 40kg 기준 4만7500 가마로 도곡농협 라이스센터, 금호미곡RPC, 능주농협DSC, 동복농협DSC를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 벼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 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매입 대금은 산물 벼를 수매한 포장 비용(680원/조곡 40kg)을 차감한 후 중간 정산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산물 벼를 매입할 때 품종 검정제도에 따라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표본으로 선정, 시료를 채취해 검정한다. 검정 결과, 매입 대상 외 품종 혼입이 20% 이상이 된 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매입 대상 농가는 품종 혼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은 매입 현장 필수 인원 운영, 검사장 내 모든 인원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검사장내 안전구간 설치, 손 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물 벼 매입이 끝나면, 공공비축미곡 포대 벼(40kg, 800kg) 매입보다 먼저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행안부 재정분석 '최고등급' 평가

구례군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재정분석결과 최고등급인 '가'등급의 평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하여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동종단체 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였다.

구례군은 그동안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계획성 분야와 종합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군민과 함께하는 예산을 편성·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드림스타트, 학생 181명에게 등교안심가방 지원

화순군 드림스타트가 개학한 초등학교 학생에게 휴대용 가글, 소독 물티슈, 소독제, 마스크 줄 등 6종의 개인위생용품이 담긴 '등교안심가방'을 지원했다.

'등교안심가방'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초등학생 182명에게 전달됐다. 등교안심가방에는 개인 위생용품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안내문, 구강 건강관리에 필요한 칫솔, 치약 등도 함께 배부했다.

등교안심가방 지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다.

화순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세~12세)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등교안심가방 지원을 통해 개인위생 상태를 크게 향상시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